

연중 제24주일

제1독서 : 출애32, 7-11. 13-14

제2독서 : 1티모 1, 12-17

복 음 : 루가 15, 1-32

숲 정 이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루가 15, 7)

강론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관용

유영도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오늘 복음의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의 비유는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관용을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잃었던 양을 되찾은 목자가 즐거워하고 잃었던 은전을 되찾은 여인이 즐거워하듯이,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또한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자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며 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처럼 하느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신다.

회개란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떠나, 하느님을 거슬러 살던 삶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삶으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어떠한 한계도 그 어떤 조건도 없다.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오만한 사람만이 하느님의 용서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킬 뿐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비로우시며 회개하는 죄인에게 너그러우시다.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며 한 죄인의 회개를 의인 아흔 아홉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신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느님의 참모습이며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는 신앙인은 어떠한 죄 중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느님을 향할 수 있다. 자신의 과거를 하느님의 자비에, 현재를 하느님의 사랑에, 미래를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항상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믿는 신앙인은 이웃의 잘못을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용서를 본받아 우리도 죄인에게 자비로운 용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룩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느님의 용서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킬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기에 진정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은 아닌지 성찰해 보자.

소리

배보다 배꼽이 커질라

동학농민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고부농민봉기의 원인은 바로 그 고을 수령의 가렴주구였다. 민보(民洩) 아래 다시 보를 쌓고 보세를 징수하고, 세금을 정백미(米)로 받아 하등미로 정부에 납부하여 그 차익을 챙기고, 심지어는 불효, 불목, 음행 등 애매한 죄목을 만들어 벌금을 수탈했다. 또한 실제 국세로 납부하는 돈보다 수수료, 하역료, 운송료 등 부가세가 더 많았다. 거기다 수송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물론 쥐가 먹어치우는 양까지 미리 보태서 내는 바람에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

세금을 올리기로 한다면 위정자 노릇을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게다. 세계 각국이 다투어 금연운동을 벌이고 금연법까지 제정되는 판국에 우리는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담배를 팔아 교육재정에 충당할 작정이다.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5%가 교육재정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휘발유, 경유, 경주마권 등에 부과 인상시키고, 아파트나 상가 분양가에 부담금을 신설하고, 취득, 등록, 지방세를 올리거나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문화, 복지 등 다른 공약사항의 실천도 간단하다. 세금을 만들어 걷어들이면 뭘테니까 행여 수입이 세금보다 적어질까 염려스럽다. ㉠



성서교실 69

“은잔이 나오는 자루 임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창세 43, 15-44, 13)

이 과의 성서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에집트에 곡식을 사러 내려간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베냐민까지 대동하고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요셉은 관리인에게 반갑게 맞으라고 지시한다. 환영만찬은 요셉의 사택에서 베풀어질 예정이었고, 형제들은 관리인의 안내로 요셉의 사택에 불러 가게 되자 불안에 사로잡힌다. 이제 또 무슨 액운이 자신들을 기다릴 것인가! 겁을 잔뜩 집어 먹은 그들은 그 원인을 지난 번에 양식을 사 가지고 올라간 후에 곡식 자루를 풀다 보니 곡식대금이 그대로 남아서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외로 관리인은 그 돈의 출처를 하느님께 두면서 자신은 분명히 대금을 받았다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여기서 하느님의 역할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된다. 이처럼 하느님의 역할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언제나 뒷 배경으로 가리워진 채 나타난다.

베냐민을 데려왔으니 무고한 간첩혐의도 벗겨지고 시므온도 감옥에서 풀려난다. 더구나 에집트 재상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진수성찬을 받고 보니, 형제들은 그 동안 쌓였던 노고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걸 느낀다. 야곱은 첫 번째와는 달리 부드럽고 친절할 태도로 형제들을 맞아 주고 있다. 노친네의 안부까지 물어 주고 특히, 막내동생 베냐민에게 각별한 친절을 보인다. 요셉은 자신의 동복동생인 베냐민을 만나 이야기를 건네는 도중 북받치는 감정을 누를 길 없어 자기 방으로 물러가 한참 울고 돌아 온다. 아마도 나이 어린 베냐민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에 대한 연민이 갑자기 마음에 솟구친 것 같다. 요셉의 형제들은 연회석상의 자리가 요셉의 배려로 지정되는 것도 모르고, 하인들이 어떻게 자기네들 나이를 알아보았을까 의아해 한다. 형제들은 에집트의 관습대로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에집트의 재상인 요셉과 겸상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음식을 자기 상에서 날라다 주게 하고, 베냐민에게 다섯 배의 음식이 주어진다.

그러다가 이 축제의 분위기가 요셉의 마지막 술책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요셉의 은잔

때문에 갑자기 경색된다. 요셉의 관리인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채겨 주면서 재상의 은술잔까지 넣어 놓는다. 이 은술잔은 점을 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데 잔 속에서 물이나 기름이 만들어 내는 형상을 보고 뿔가를 예견한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이 도시에서 나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은 관리인에게 그들을 뒤쫓아 은잔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게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이 가장 귀여워하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다. 성물을 훔친 자는 사형이니 베냐민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요셉의 관리인은 관대하다. 은잔을 훔친 자만 나라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형제들은 무혐의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형들은 고통의 표시로 자기네 옷들을 찢고, 떠난 도시로 다시 무거운 발길을 돌린다.

이 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치밀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형들이 아직도 동생에 대해 질투와 미움을 보내지 않는지 시험해 보려고,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빈틈없는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긴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이 막내 베냐민에게 특별대우를 해 주어도 미움을 보내지 않고, 막내에게서 은술잔이 나왔을 때에도 공동 연대감을 느끼고, 함께 책임을 나눠지려고 한다.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진신C-T촬영 · 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 · 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젤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이 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 이브생모랑, 위크엔드
· 비킹검, 아스트라, 빌트모아
· 런던포그, 크레센도, 포엔모아
점수천(시몬) · 강숙기(짓다)
코아백화점 4층
☎ 86-2884, 80-1404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악기 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86-1181, 83-5332
호출기 015-670-1651

잠간

7.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지럽다. 모든 가치가 물질 만능주의로 치달아 인간성 상실은 물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간 사회의 기본 세포라 할 수 있는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이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피입과 낙태 등으로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이 가정에서부터 침해당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가정의 보금자리가 담당해 왔던 중요한 기능들이 하나 둘 상실되어 가고 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며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작은 '공동체'이다. 더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신앙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공동체, 가정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특히 지난 1994년 '세계 가정의 해'를 지내면서, 현대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거듭 자각하고 건강한 가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사회도 건강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수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교회와 사회의 더욱 밝은 내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교회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교회가 사회 안에서 수행해 나가야 할 소명 가운데 으뜸 자리를 차지하며,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이어 이번 9월 24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전국가정대회도 교회의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전국가정대회를 통해 현대 가정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고,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촉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혼인성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정에서는 물론 이웃에게 증거할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교구 소식

1. 축! 견진: 9월 23일(토) 오후4시 시기동 성당
9월 24일(일) 오전10시30분 평화동 성당
 2. 교구장 사목 방문: 9월 22일(금) 전동 성당, 상관 성당
 3. 천호 피정 안내: 9월 19일(화), 주제-화해와 일치, 강사-한봉섭 신부
문의 73-6600
 4.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 모임: 9월 24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5. 교도 사목 후원회 하루피정: 9월 18일(월) 오전10시 치명자산 성당
회비-1,000원(도시락 지참)
 6. 전북대 가톨릭 교수회 신앙강좌: 9월 18일(월) 오후5시 장소-전북대학교 인문대 1호관 2층 회의실, 강사-이병호 주교, 주제-그리스도 강생 제3천년대를 앞두고
 7. 혼인강좌: 9월 24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문의 85-5098
 8. 여성 제51차 꾸르실료: 9월 21일~24일 천호 피정의 집
- ※ 축! 영명: 21일(성마태오) 황인규, 김진석, 유중환, 김진화, 박종탁 신부님

요심이 (1150) 김병오



사무장 구함

1. 자격: 영세한 지 3년이상, 교홀이상
2. 제출서류: 이력서, 세례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각 1통
3. 접수마감: 9월30일까지
4. 접수 및 문의: 합일 천주교회 ☎(0653) 861-0065

성바로 딸 수도회 성소자 피정

- 때: 10월1일(일) 오전 9시
- 장소: 군산 대야 성당
- 준비물: 신앙성서, 묵주
- 회비: 3,000원
- 접수 및 문의: 9월25일까지 성바로 서원 ☎ 252-3398

김제요촌 성당 설립 60주년 기념 바자회

- 때: 9월21일~25일(5일간)
- 장소: 요촌 성당
- * 바자회 수익금은 '6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에 사용됩니다.
- 천주교 요촌 교회 사목회장 조윤식(요한) 주임신부 문규현(바로로)

특수 헤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은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개사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아파트 앞 ☎본사: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0654) 467-6578~9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젠,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풍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삼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0652)75-055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24주일
- ◎ 교무금 및 주일헌금 납부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니다.
- 화요일반-저녁미사 후
- 일요일반-공식미사 후
- 중·고생반-일요일 후 3시30분
- 2. 남전주 지구 중·고 체육대회: 오늘 해성고
- 3. 모임: ①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 ②여성연합회-20일 어머니미사 후
- ③푸리아-24일
- 천사의 모후-공식미사 후
- 자비의 모후-후 2시
- 4. 96년 본당 달력 광고 신청: 광고크기 가로 4cm 세로 5cm 광고문안 작성하여 2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5. 축! 혼인: 24일 12시
- 신랑-김철(대건안드레아) 군
- 신부-이정주 양
- 6. 금주 청소: 중노 9, 10반
- 차주 청소: 중노 11, 기린방 1반
- 지난주 봉헌금: 1,007,460원 □ 교무금: 95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금주 모임: 프란치스코삼회-9월17일(일) 후 2시, 장소-강당
-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유아방
- 2. 차주 모임: 반장회-9월24일(일)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 3. 축! 혼배: 오늘 공식미사 후, 오전 11시30분
- 신랑-고동균(요한)
- 신부-김미애
- 4. 청소 안내: 금주-사랑의 샘
- 차주-상아탑
- 5. 도서전사회: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001,450원 □ 교무금: 1,214,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9월은 순교자 성월
- 1. 여성 제51차 꾸르실료: 21~24일, 천호 피정의 집
- 본당에서 참가하는 두 분 자매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신일 아파트 가정 방문: 22일(금)
- 구역 미사와 반모임도 함께 갖겠습니다.
- 3. 모임: 빠스카회-오늘 공식미사 후
- 성모회-21일(목)
- 빈첸시오회-23일(토)
- 4. M.E 소개 모임: 24일 공식미사중
- 5.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라경섭 부부
- 봉헌-송명진 가족
-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이갑규 부부
- 봉헌-육경수 가족
- 6. 성당 청소: 23일(토)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653,800원 □ 교무금: 673,500원
- 추석수재의연금: 345,9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순교자 현양의 밤 가든 음악회: 9월23일(토요일) 오후 7시 잔디
- 밭(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차는 성심학교
- 운동장 사용)
- ◎ 오늘 공식미사중 김진소 신부님 특별 강론
- 1. 금주: ①바나의 성모Cu. (후 2시)
- ②사목회(후 8시) ③청년회(후 8시)
- 중·고등부 남전주지구 연합 체육대회: 17일 8시 성당 집결
- 장소-해성 고등학교
- 2. 영세자 집중교리: 18일~21일 밤 8시
- 면담: 18일~20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30분
- 영세식: 24일(공식미사중)
- 3. 순교자 현양을 위한 초청 강연회: 9월20일(수요일) 오후 7시30
- 분, 강사-김진소 신부
- 4. 성화회: 18일(후 7시)
- 5. 성모회: 19일(전 11시)
- 6. 교구 사목방문: 22일 오전 10시, 사목회 인원, 단체장 참석바람.
- 7. 빼앗다회: 20일(전 11시)
- 8. 성지회: 22일(후 8시)
- 9. 차주: ①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②차량 축복식
- ※ 9월은 성지순례가 많은 순교자 성월이므로 걸어서 미사에 참석할
-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061,6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9월은 순교자 성월-순교정신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 ◎ 연중 제24주일-주일미사를 결하지 맙시다.
- ◎ 정성된 기도와 봉헌(주일헌금,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1. 동정녀들의 모후Cu.: 오늘 공식미사 후
- 간부들은 전원 참석하십시오.
- 2. 모임: ①새 영세자 모임, 성가대-공식미사 후 ②성모회, 자모
- 회-다음주일 ③지속적인 생체조배-21일(목) 저녁미사 후-
- 금요일 미사 전까지
- 3. 남전주 지구 중·고학생 체육대회: 오늘 17일(일) 해성학교 강
- 당 4. 다음주일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5. 교무금은 세대별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 6. 감사: ①차량구입 신임-최영순, 익명(각 10만원) 김분임(5만
- 원) 윤복순, 백귀례(각 3만원) 강말녀(1만원) 계-32만원, 누
- 계-112만원 ②차량구입 봉헌-최영순, 익명(각 10만원) 김분임
- (5만원) 윤복순, 백귀례(각 3만원) 강말녀(1만원) 계-32만원,
- 누계-92만원 ③제대꽃 봉헌-안 아가다 1만원
- 7. 정년회, 자모회 나들이: 18일(월) 하동 쌍계사
- 8. 성당 청소: 금주-사랑하움어머니Pr, 차주-황금의궁전Pr.
- 9. 금주 전례: 해설-김영진, 독서①최경년 ②송정자
- 봉헌-박복동 가정
- 10.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김완식 ②이춘봉
- 봉헌-강재식 가정
- 지난주 봉헌금: 431,850원 □ 교무금: 1,148,000원
- 추석 특별헌금: 545,7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니 내 잘못 항상 눈 앞에 아른거립니다"
- (시편 51.3)
- ◎ 본당의 날 야외행사: 24일 10시30분 건진성사 후-완산중학교
- 운동장, 간편한 복장(운동복) 미사시간 안내-5:30, 10:30,
- 저녁 7:30(9시미사 없음)
- ◎ 건진 성사: 24일 10시30분-완산중학교 강당
- 건진자와 대부 대모는 10시까지 오세요.
- 1. 건진대상자 집중교리 및 점호: 21일 저녁 7:30
- 2. 건진자 전례 연습: 22일 저녁 7:30, 학생 23일(토) 후 6시
- 3. 여성 제51차 꾸르실료 강습회: 21일~24일(천호) 송옥주(사라)
- 백정현(테사) 4. 교도소 후원회원 피정: 18일전 10시~4시, 최
- 명자산(준마위) 점심도사각 각자 차감, 회비-천원, 5. 남전주지구
- 중·고 학생 체육대회: 오늘 전 9시, 해성중·고 운동장, 6. 가정
- 방문: 19일 전 9시-주공APT 502동, 후 2시-주공APT 503동, 21
- 일 전 9시-주공APT 504동, 후 2시-주공APT 505동, 22일 전 9시
- 주공APT 506동, 7. 성소 후원의 날: 오늘 공식미사 후, 매 미사
- 전, 후 회비 납부 8. 회의: 임마누엘, 한빛회, 윤드레아, 몽승회-오
- 늘 공식미사 후, 성모회-20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24일 저녁
- 미사 후, 9. 혼인 강좌: 24일 전 9:30 센타, 회비 각 일만원, 10.
- 96년 월력 광고 신청: 광고크기 가로 4cm 세로 5cm 광고 문안 작
- 성하여 2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11. 국악 설가 연습: 18
- 일~20일 저녁 7시30분, 12.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 봉헌: 9월17일 저녁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1,425,000원 □ 교무금: 1,896,000원